

이집트, 최초 민주 대선으로 첫 이슬람대통령 탄생

1. 대선 결과 요약

□ 무바라크 퇴진 이후 1년 4개월 만에 대선 실시

- 2010년 말부터 시작된 중동 민주화 시위의 영향으로 이집트에서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 2011년 1월에 무바라크 대통령의 30년 독재 정권이 붕괴되었음. 이후 군부가 과도정부를 운영해 왔으며 2012년 5월 23~24일에 사상 첫 민주 대선이 치러졌음.
- 13명 후보가 공히 30% 이하의 득표율을 기록함에 따라, 득표율 1, 2위인 무함마드 모르시(24.3%), 아흐마드 샤피크(23.3%)가 6월 16~17일 결선투표에 진출하였음.
- * 이집트 선거법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율을 얻은 후보가 없는 경우에 득표율 1,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□ ‘무슬림형제단’의 무함마드 무르시 당선

- 대선 결선투표 결과는 6월 21일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이집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이유로 무기한 연기했다가 사흘 뒤인 24일에 무르시 후보가 51.7%의 지지율로 당선되었다고 공식 발표하였음.
- 6월 18일에 무슬림형제단은 개표율 98%인 상황에서 무르시 후보가 51.8%의 득표율로 차기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공식 선언하였으며, 샤피크 후보 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음.



2. 대선 전후의 국내외 반응

□ 민주화세력의 지지 없어 대규모 시위 재발 가능성 잠재

- 이슬람정당인 ‘무슬림형제단’의 무르시 후보와 전 무바라크 정권 시절 총리를 지냈던 샤피크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한 것에 대해 수천 명의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음.
 - 일부 시민들은 샤피크의 선거사무실에 난입하였으며, 일부는 지난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‘무슬림형제단’이 국민을 위해 한 일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하였음.
 - 이슬람율법에 기초한 종교국가 건설이 목표인 무르시가 당선된다면 정치적·경제적 퇴보가 우려되며, 전 정권과 밀접한 샤피크가 당선된다면 과거 군사정권으로 회귀할 우려가 높다며 두 후보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음.
- 향후 무르시 정권은 시민혁명 세력의 불만을 잠재우는 동시에 경제를 재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으며,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혼란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음.

□ 새 정권과 군부와의 갈등 예상

- 과도 정부를 이끄는 이집트 군사최고위원회(SCAF)는 7월 1일까지 민간 정부에 권력을 이양하기로 약속하였으나, 대선 전부터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등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음.
 - 군부는 지난 총선(2011년 말~2012년 초)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집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내세워 의회를 강제 해산하였고, 새로운 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군부가 입법과 예산 편성권 및 헌법 조항 거부권을 갖는다는 임시헌법을 발표하였음.
 - 또한 대통령이 군을 동원할 경우 군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발표하여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군통수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으며, 새 헌법제정위원회 구성 권한도 갖겠다고 나서는 등 무르시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에도 권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임.



- 이에 미국은 군부가 권력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우려된다며, 선거로 당선된 민간 정부에 약속대로 모든 권력을 이양하지 않을 시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음.
- 군부가 선거 결과에 불복하거나 새 정권 수립 후에도 국정에 개입할 소지가 있어, 이집트의 완전한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권과 군부와의 대립·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.

□ Fitch, 정치 불안 지속으로 이집트 신용등급 1단계 강등

- 2011년 초 민주화시위 발생 이후 정국 혼란 및 치안 불안으로 이집트에 대한 국제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이 여러 차례 강등된 바 있음. 최근에는 대선을 앞두고 의회가 해산되는 등 정치 혼란이 지속되자 2012년 6월에 Fitch가 이집트의 신용등급을 BB-에서 B+로 1단계 강등했음.

〈표〉 민주화시위 발생 이후 주요기관의 국가신용등급 변화 추이

평가기관	등급 변화
OECD	4등급(2011.3) → 5등급(2012.1)
S&P	BB (2011. 2) → BB- (2011. 10) → B+ (2011.11) → B (2012.2)
Moody's	Ba2 (2011. 1) → Ba3 (2011. 3) → B1 (2011. 10) → B2(2011.12)
Fitch	BB (2011. 2) → BB (2011. 6) → BB- (2011.12) → B+(2012.6)

【박 유 정】